https://doi.org/10.5392/JKCA.2018.18.12.611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부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The Qualitative Analysis on Experiences of Caregiving Middle-aged Woman's Biological Parents

박종환, 신승옥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ong-Hwan Park(pjh1738@naver.com), Seung-Ok Shin(seung1929@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부양경험에 관한 연구로써 친부모를 부양하는 중년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들에서 총 244개의 문장을 추출하였고, 그 중에서 67개의 의미 있는 문장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문장들을 9개의 하위주제로 범주화 하였고, 이어서 4개의 상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부양에 대한 이유와 동기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들 수 있었다. 둘째, 부양경험에서 겪는 심리적 현상으로는 부양부담으로 인한 무거운 마음을 감수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 곁을 지켜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양경험의 의미로는 부모님을 평생의 선물처럼 여기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끝으로, 부양경험의 영향으로는 부모에 대한 이해 증가와 행복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삶에 대한 조망 등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중심어 : | 중년기여성 | 친부모부양 | 부양경험 | 질적연구 |

Abstract

Ten middle-aged women who support their biological parents have been interviewed to investigate their experiences of caregiving their parent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Consequently 244 meaningful sentences were selected from the collected interview data and then were sorted into 67 meaningful sentences and, consequently into 9 sub-themes. Finally four high-level themes are wrapped through the summarizing process. The first theme is motivation of caregiving. Inevitable cases are most common for caregiving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general responsibilities to their parents are also deduced as a motivation of caregiving. The second theme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of middle-aged women while they provide consistent caregiving their biological parents even though they have some troubles with their parents. The third theme is meaning of caregiving. For some women, caregiving their biological parents is their own happiness and gratitude such as lifelong gifts. The final theme is influence of caregiving. Further understanding their parents, and more distinct prospecting their future lives are unexpected fruits from the caregiving their biological parents.

■ keyword : | Middle-aged Women | Caregiving Elderly Biological Parents | Experiences of Caregiving | Qualitative Analysis |

접수일자 : 2018년 11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12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신승옥, e-mail : seung1929@naver.com

I.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령화 사회란 노인 인구 비율이 7%일 때를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에 이를 때를 '고령화된 사회'[1]라고 한다. 2017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에 707만 명으로 8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으며, 2027년에는 1,157만 명으로 58.7%, 30년 후인 2047년에는 1,861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67.4%가 증가 할 것[2]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청의 자료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이상 되는 초 고령사회의 진입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살고 싶다'가 53%,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치는 노인들은 '자신을 위해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지만 자식들이 불편해 할까봐'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3]. 따라서 고령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문제는 자연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전의 노부모 부양형태는 농경문화 및 유교사상이 지배했던 시기에는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의 상징이었고, 당연시하여왔지만,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 시대, 맞벌이 사회구조[4] 등은 부양할 자녀의 감소로 이어졌고, 현대의 노부모 부양형태는 변모하고 있다[5].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핵가족 형태가 50% 정도의 수준[6]에서 2016년 81.7%이고[7], 부양형태와 관련해서는 노부모와 장남(맏며느리)과 사는 비율이 12.1%로 전체 자녀 중 가장 높았으나, 이는 과거 2008년(20.1%)에 비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8]. 이는 부양 주체가 장남 위주에서 차남, 딸, 며느리, 사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남 외에도 차남이나 기혼 딸과의 동거율도 증가하고 있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전체 자녀의 공동의무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2016년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족 부양에서 모든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71.1%로 가장 많고 자식 중 능력 있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계속 증가 추세이며, 또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9]. 그와 같은 맥락은 2017년 70세 이상 부모를 둔 대구 거주 40대 이상 기혼 남녀 350명씩을 상대로 실시한 '고령화 사회의 노부모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 안에서 노부모 돌봄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자녀가 골고루'라는 답이 73.1%이며, 노부모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장남과 맏며느리(5.6%)'라는 전통적 의식이 많이 사라진 조사로 볼 수 있다[10]. 과거, 전통적인 가치관 아래서 우리는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덕이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대가족 문화가 사라지고 고령화 시기가 증가하면서 장남이나 아들만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어느 외교부 장관후보는 자신이 맏딸로서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다는 발언은 변화되어 가는 부양문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한 예[11]라 하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이 친정 부모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선뜻 허락하는 사위가 많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경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은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 혹은 친딸로서 부모부양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친딸로서 부모부양의 비율이 남성 혹은 맏아들의 부모부양 비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아울러 친딸로서의 부양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다. 친딸의 부양경험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에는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12][13], 부모 돌봄 관계 연구[14],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5][16] 정도이다.

이런 연구들은 양적연구방법으로 진행되어 부양의식, 부양관계, 부양스트레스 등에 관하여 조명하고는 있지만 중년기 여성으로서 친부모 부양에 관한 동기, 심리적 현상 그리고 부양경험의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거

나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중년기 여성이라 함은 40, 50대 여성으로서 개인적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며 삶의 유한성을 체감하고 인식하여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반추와 성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17]. 이러한 중년기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변화를 안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18]. 그런데 이러한 중년기의 딸이 맡은 부모 부양의 중차대한 책임은 자신의 안과 밖으로 심리적 부담은 물론이고 심리적 역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딸로서 부모 부양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현상과 역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중년 여성으로서 딸 중심의 부양경험을 연구하고자 접근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부양경험에 초점을 두되 연구 문제로는 첫째, 중년 여성들은 어떤 이유와 동기를 갖고 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가? 둘째, 친부모를 부양하는 경험에서 중년 여성들이 겪는 부양의 심리적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심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셋째, 중년 여성들이 친부모를 부양하는 경험에서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자는 현재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게 되었고, 질적 연구에 대한 흥미와 의욕은 날로 더해갔다. 평소 주변의 지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딸로서 친부모 부양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는 중년에 속해 있고, 중년여성으로서 친부모의 부양문제에 관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양문제를 연구하고 싶었다. 우선, 노력 끝에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모아졌다.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48세부터 64세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기혼 여성 6명과 미혼여성 4명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부모의 연령대는 76세부터 92세까지이고 양부모가 생존해 계신 두 사례 외에 나머지 여덟 사례는 모친 혼자 생존해계신 경우이다. 연구 참여자 중 8명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휴직 상태, 한 명은 전업주부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부양 형태는 한 집에서 동거하는 8명과 근거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1명, 그리고 3년 전까지 친정어머니를 부양하였으나 지금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둔 자녀 1명 등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고, 보호를 위해 알파벳 익명으로 기재하였다. 아래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번호	성 명	나이	거주지	부양형태	결혼 유무	부양 대상
1	참여자 A	50대	서울	동거	기혼	모
2	참여자 B	50대	서울	비동거	기혼	모
3	참여자 C	50대	경기	동거	미혼	부,모
4	참여자 D	40대	경기	동거	미혼	모
5	참여자 E	50대	서울	비동거	기혼	부,모
6	참여자 F	50대	충청	동거	미혼	모
7	참여자 G	60대	서울	동거	기혼	모
8	참여자 H	50대	서울	동거	기혼	모
9	참여자 I	40대	서울	동거	미혼	모
10	참여자 J	50대	서울	동거	기혼	모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먼저 전화로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참여 의사를 물어서 승낙을 받고 2018년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에게는 작성해 둔 질문지를 SNS와 메일을 통해 먼저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읽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전화를 걸어와 연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거나, 답변을 미리 서식으로 정리해 와도 되는지 묻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생성된 연구 자료는 본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렸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폐기처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이런

실천 약속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연구를 위한 인터뷰 수락을 허락 받았고, 감사하게도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에 기꺼이 참여해 주었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와 녹음 등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자의 상담소, 조용한 카페, 예술의 전당 숲속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일단 인터뷰의 질문 순서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땐 준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하였고 참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진술해주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관련 질문이 생기면 메모해 두었다가 추가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이 이론적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연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노트에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 참여자의 느낌, 표정 등을 받아 적었다. 참여자의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2시간 이상이며, 참여자가 새로운 내용이 없고 같은 내용의 대답이 나온다고 말할 때까지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된 내용은 모두 자료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내용

문항	질문
1	친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계기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2	당신이 지각하고 있는 친부모님의 모습에 대하여 초등학교 시기, 중, 고등학교 시기, 20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분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3	친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때나 만족스러웠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4	친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불편했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5	친부모님을 부양하는 혹은 부양해야 한다는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6	친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7	친부모님 부양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8	친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당신의 친부모님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친부모님 부양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이 인터뷰를 마치며 드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써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사조에 그 기반을 둔 가운데 Colaizzi의 방법[19]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의 특징으로는 체험 연구,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의 현상 해명, 체험의 의미나 실존적 의미를 일정한 정도로 깊이 있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것[20]]으로 본 연구도 그런 방법을 따르고 있다.

현상학의 목적은 우리의 일상 경험들의 본질이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21]으로 현상학적 연구는 말 그대로 '현상' 에 대한 연구이다. 현상이란 바로 참여자의 경험이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의 경험을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22]. 이명진(2016)은 현상학에 대해 일상의 세부적인 것과 언뜻 보아 사소한 것 속에 있는 중요한 것, 당연시되는 것 속에 있는 특별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려 깊게 의식하도록 이끈다[23]고 하였는데 이명진이 말한 "언뜻 보아 사소한 것 속에 있는 중요한 것, 당연시되는 것 속의 특별한 것"은 개인의 직관적 체험, 경험 그대로를 현상으로 바라볼 때 그 의식 자체가 삶의 의미라 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의 창출 경험이 아닐까 그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첫째, 기술들을 읽기- 연구 참여자들의 전사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녹음이 애매한 부분은 다시 찾아 경청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기-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무리들로 묶기-자료마다 발견된 의미 있는 단위를 괄호로 묶고 다시 명확한 주제들로 묶어 재기술하고, 넷째, 무리들로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하기-조사된 현상을 주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며 기술하였고, 다섯째, 각각의 응답자가 제시한 철저한 기술의 유효성 확인하기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시하기 위해 유효성 확인하기, 전형적 담화쓰기, 진술 종합하기로 마무리[24]하는 절차를 따랐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는 ① 자료의 검토 ② 의미나 주제의 추출 ③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④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⑤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으로 종합하게 되었다[25].

공병혜(2004)는 현상학에 대해 Husserl의 말을 인용해서 현상학자가 따라가야 할 규범은 "우리가 의식 자체에서, 즉 순수한 내재성에서 본질적으로 통찰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26]고 말한다. 그리하여 연구자의 가치 판단을 멈추고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현상[27]만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연구자가 가진 선입견으로 참여자의 주관적 진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이어서 조사된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들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인 기술을 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들에게 보여주어 참여자들이 나타내고자 한 주제와 같은지 확인토록 하였다.

4. 윤리적인 고려와 타당도와 신뢰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목적을 알렸고,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인간생명존중의 취지 아래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졌고, 인권존중과 사생활 보호 차원의 실천사항을 약속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신빙성을 갖기 위하여 Patton(2002)의 주장에 준거하여[28] 연구자와 피연구자의 진실성, 피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심층면접으로 인한 자료수집에 충실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연구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고 또한 연구방법론도 수강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었다. 그리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Merriam(1998)의 삼각 검증법 방법을 활용하였으며[29],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동료 검토법[30]을 활용하여 연구주제, 연구 방법론, 그리고 관련분야에 식견이 있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명의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 수업에 참여하는 동료 6명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으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10개의 인터뷰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전사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해서 총 244개의 문장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문장을 반복해서 고찰한 후 의미코드는 67개로 정해졌다. 그리고 의미코드들을 검토한 결과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애틋함, 무거운 마음, 반발심, 후회 없도록, 평생의 선물, 깊은 존재감, 이해와 깨달음, 성찰과 조망 등이었다. 다시 9개의 하위주제를 묶어볼 때, 최종 함축된 4개의 상위주제로 조직되었는데, 선택되어진 나, 흔들리는 나, 성숙해 가는 나, 거울 앞에 선 나 등이었다. 그러므로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부양경험을 최종적으로 기술하면 중년기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하기 시작하였으나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동기가 되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몰라라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부양은 중년기 딸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주었고 부양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중년기 딸은 때로는 반발심이 일어날 정도로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부양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부양 경험의 의미와 영향으로는 부모부양이 평생의 선물로 받아들여 성숙해 가는 자신을 보게 되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자신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는 경험이 되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한 내용과 같다.

표 3. 연구에 따른 주제와 주요코드

주제	하위 주제	주요코드
선택 되어진 나	어쩔 수 없는	모의 건강악화, 형제 결혼, 근거리에 거주, 부의 부재, 가사와 양육의 도움
	애틋함	부양욕구, 시간적 여유, 헌신에 보답, 당연한 의무로 생각, 자식으로서의 도리, 부양에 대한 책임
흔들리는 나	무거운 마음	불편을 느끼는 가족, 부부불화제공, 형제들의 부정적 관계, 가족 갈등 야기, 공간의 불편, 생활패턴의 차이, 개인시간 포기, 의견조율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돈에 집착, 심리적 부담감
	반발심	조건적 효심, 부양에 대한 저항, 성격 차이, 양가감정, 감정조절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 아들선호 사상에 반발, 편애하는 모습에 반발, 억울한 마음을 토로함
	후회 없도록	아침을 차리다, 공경받는 느낌 주기, 맞춰드림, 곁에 머물러 주기, 모습을 닮아감, 외로움 회상
성숙해 가는 나	평생의 선물	행복감이 드러남, 동거로 안정감, 편안함, 만족함, 배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신에게 특별했던 기억, 자존감 향상, 불안감이 없어짐, 뿌듯함, 평생의 혜택, 행복한 동거
	깊은 존재감	엄마 역할 기대함, 서로 의지함, 자녀 교육에 헌신함, 신앙 같은 존재감, 인정받은 보람, 공양심리가 깊어짐
거울 앞에 선 나	이해와 깨달음	부모님에 대한 이해 증가, 부양의 책임감, 부모님 행복에 대해 깨달음, 부모님 인생 조망, 좋은 모델 역할, 행복한 동거와 이별,
	성찰과 조망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 임종에 대한 성찰, 미래의 삶 조망, 결혼 결심의 계기, 자기관리와 조망, 부양 대책 마련 인식

1. 선택되어진 나

1.1 어쩔 수 없는

참여자들의 부양의 동기 중에는 어머니의 우울 증세와 치매증상을 보면서 불안해진 딸이 합가를 제의하였고, 그리고 근거리에 산다는 이유, 또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던 형제가 결혼해서 집으로 들어간 경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초기 치매증상이 그 백 단위 지폐를 셀 때 그런 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만원이라든지 3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헷갈려해요. 진짜 그래서 어 엄마 이거 치매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다." (참여자 A)

"가족 중에 제일 근거리에 있는 내가 케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나서지는 않았어요. 나서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근거리에 있었고 질병이 잦아지심으로 인해서 그냥, 특별하게 계기는 뭐. 여건상 내가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죠." (참여자 E)

1.2 애틋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였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육체적으론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편안하여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었었다고 한다.

"사실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딱히 부양이다 라기 보다는 그냥, 엄마가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지," (참여자 F)

"요양원 이런 데는 본인도 안 가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엄마가 너무 많이 고생하고 우리를 키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신인 것 같아요. 엄마가 마흔여덟에 과부가 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젊었을 때,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불쌍하죠." (참여자 J)

"엄마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유독 제가 엄마 사랑이 되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 니가 모시고 가라 이것도 아닌데 내가 모시고 가서 엄마가 나랑 있어야지 좋을 거야 생각하고 모시게 되더라고." (참여자 J)

2. 흔들리는 나

2.1 무거운 마음

부양을 결정하고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살 때와 다르게 마음이 무겁다. 예를 들어 부양을 시작하면서 참여자의 개인 시간은 부모님의 병원 스케쥴로 채워지고 참여자의 사회생활에는 제약이 생긴다. 또 장모와 사위가 성격적 특성이 비슷해서 부딪힐 때 부양하는 딸의 입장이 난감해지기도 한다. 친모와 수면 패턴이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

고 친모와 처음부터 함께 살아왔지만, 친모가 나이 들고 고집이 세지면서 의견 조율이 안 되서 힘들다고 표현한다. 부양으로 무거운 마음은 개인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감, 아들만 편애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친모가 궁핍했던 시절 고착된 '돈은 쓰지 않고 모으는 것' 이란 생각을 강요하며 간섭해 오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게 사위가, 사위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격, 성향이 똑같아. 근데 똑같은 만큼 둘이서 서로 싫은 표정 싫은 말을 너무 둘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참여자 A)

"그니까 그런, 생활패턴이 좀 안 맞아요. 엄마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시고, 저는 늦게 자고 주말에는 조금 늦게까지 자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안 맞아서 엄마랑 좀, 부딪힐 때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짜증도 내고." (참여자 D)

"아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우,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니까 의견조율이 잘 안될 때가 좀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F)

"엄마는 이제 돈.. 돈을 많이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걸 좀 내려놨으면 이제 뭐 이렇게 옛날처럼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간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젠 좀 내려놨으면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참여자 I)

2.2 반발심

부모를 부양하는 중에 부득이하게 저항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한 참여자는 친모에게 사랑받고자 집안에 헌신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오직 외아들에게 향했고 정작 외아들은 부양을 거부하자 분노가 일어났다. 그 외, 친모에 대한 양가감정, 형제가 여럿인데 혼자서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억울함, 부양은 딸에게서 받고 아들만 편애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등 반발심이 표출되었다.

"섭섭했지, 무슨 장사하려고 딸 낳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분노 같은 마음. 근데다 결혼하면서 또 남 동생네 집안으로 너무, 남동생한테 대해 주는 거와 우리 엄마는 딸한테는 무조건 뜯어내자는 주의고 아들한테는 무조건 갖다 바치자는 주의였어요." (참여자 B)

"계속 엄마가 아파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왜 나 혼자 이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생들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왜 내가 혼자 이거 짊어져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B)

"어머니가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어요. 아들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오빠가 잘 안 풀리니깐 오빠한테 끊임없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거를 뺏어서 주고 싶어 해요. 아들 사랑이 넘쳐서 제일 불편했죠. 아들 사랑이 딱 멈춰야 되는데 아들 사랑이 너무..." (참여자 H)

2.3 후회 없도록

부양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거나 저항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노부모 곁에 머물러 주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어느 참여자는 친모가 딸 집에 얹혀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매일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30대에 혼자되신 어머니를 엄마로만 바라보았지 단 한 번도 여자로서의 인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외로웠을 어머니를 향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부양으로 자유가 구속되는 것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던 또 다른 미혼의 참여자는 친모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기도 하였다.

"9남매 맏이로 한 번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엄마인데 한 여성으로서 너무 안됐고.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침은 꼭 차려줘요. 엄마도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참여자 A)

"그니까 되게 미안한데요. 여자로서의 엄마 인생을 한번 얘기라도 해보았으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여자라는 생각을... 엄마도 여잔데.." (참여자 I)

" 얘길 하다 보니 아, 엄마가 환자였지, 엄마한테 잘 해야겠구나.. 이제는 정말 엄마 곁에는 누군가는 있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D)

3. 성숙해 가는 나

3.1 평생의 선물

부양의 의미로 참여자들은 계속되는 부모의 시중들기가 육체적으론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편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한 참여자는 젊은 시절, 친모가 아이 양육에 도움을 준 것이 감사하고 이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힘들었지만, 자신이 엄마와 함께한 삶은 자신에겐 평생 혜택이었고 행복하다고 회상하였다. 또 부모의 건강회복으로 만족감이 상승하는 것, 동거로 안정감이 드는 것, 감사함을 느끼는 것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도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해요. 엄마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딸하고 있는 게...그냥 엄마가 내 눈앞에 있으신 순간이" (참여자 J)

"이제 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넘어지셔 가지고 깁스를 해야 될 때 나중에 깁스를 풀었을 때, 병 치유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제일 만족스럽죠." (참여자 E)

"늘 평생을 같이 있은 거야, 자식들 중에서 내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본거죠. 행복한 생각이 드네요. 내가 참 행복하다. 후회 없이 이제 어머니가 여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더 잘해야되겠다는 생각이 행복한 것 같아요." (참여자 G)

3.2 깊은 존재감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인데도 여전히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딸의 깨달음,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이 자신을 돌봐주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부모를 부양할 차례라고 생각하는 딸, 어머니에 대해 싫어하던 모습을 은연중 자신이 닮아간다는 것, 함께 있어서 아플 때 서로 의지가 되는 것, 신앙 같은 존재감, 부모를 향한 공양심리가 깊어진다는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내가 엄마를 아직도 그냥 엄마. 오로지 그냥, (처음부터 엄마였으니까) 네 그런..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엄마의 모습으로만 아직도 남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면에서는 아직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나..." (참여자 F)

"아, 내가 엄마를 의지하는 존재인데 음 이제는 엄마가 자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는 엄마가 자식한테 의지하는 상황이 된 거죠." (참여자 J)

"음 부모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돌봐줬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당연히 자식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참여자 I)

"잠깐 아플 때라도 돌봐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혼자 살 때 아픈 것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서로 의지가 된다는 거. 또 꼭 의미를 찾자고 하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I)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교회 가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잔잔하게 스며든 것 같아. 엄마의 신앙이. 나는 뭐 내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지만, 나한테는 엄마가 신앙이야, 엄마를 이렇게 보면.. 엄마를 의지한다는 거죠." (참여자 G)

"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은 시간. 이번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제가 옷을 샀어요. 엄마 입히고 싶어서. 사면서 이걸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샀거든요. 그니까 마음이 그니까 이제 울컥해지더라고요." (참여자 J)

4. 거울 앞에 선 나

4.1 이해와 깨달음

부양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부모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또 부모님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부모님이 노인이 된 것을 인정한 후에 전보다 설명을 쉽고 자세하게 되었다는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또한, 본인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이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정말 자식들한테 엄마는 믿음 생활 잘했고 정말 좋은 엄마였다. 서로가 내 자식이어서 행복했고 내 부모여서 행복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눈물 안 났어요?) 어우, 왜 안 났겠어요. 몇 날 며칠 생각을 했지요." (참여자 E)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내 나이 때 엄마가 혼자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참으로 심심하게 사셨구나. 엄마가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F)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 이제 좀 그런 거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과 함께 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은 아주 조금씩은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F)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가벼워지냐면 내 운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참여자 J)

4.2 성찰과 조망

부양의 경험이 미래 삶을 조망하게 되었는데,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 즉, 인생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효심을 표현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식에게 신세 지지 않고 싶은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미혼 참여자 중에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친부모님 부양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있는지 질문하자 참여자들은 고령사회의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과연 어떤 부모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과연 어떤 부모로 남겨져야 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참여자 E)

"친정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내 생각을 했어요. 이 모습이 나의 노후다. 나의 노년기를 상상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참여자 E)

"엄마한테 마지막 생을 같이 한 식구로 살고 싶어서 같이 사는 것을 선택했는데 엄마가 진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엄마 방에서 조용히 요양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참여자 A)

"자기 부모랑 같이 사는, 합가한 사람들을 격려를 해준다면 이 국가는 성공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잡지 못하고 이상적으로만 국가가 뭘 해주어야,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서류를 필요로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제철 과일 한 박스,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참여자 A)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갈 정도도 아니고 센터에 갈 정도도 아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빈곤층의 노인들이 특히나 갈 수 있는 곳...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의 주거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네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나이 들면 와서 살 수가 있고.."(참여자 H)

현상학적 글쓰기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들려준 부모 부양의 경험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부모 부양을 해야 하는 처지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곤 선뜻 나서서 부모 부양을 자원하지 않았다.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하여 부담스러운 만큼 스스로 수동형의 선택되어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런 인식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애틋함 속에는 부모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나 자식으로의 도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모 부양은 참여자들을 심리적으로 흔들 정도로 부담과 불편을 제공하는 일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압력과 갈등 속에서 참아야 했고, 불화제공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부모의 아들 선호사상이나 편애하는 모습에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 부양의 경험은 부정적이거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부모에 의해 자신에게 특별했던 기억들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들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선물로 인식하므로 성숙해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모 부양의 경험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다. 결국, 참여자들에게 부양경험이 주는 의미는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은 존재감이었다. 이것은 부모 부양의 불편과 부담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수확이자 성숙해가는 자신의 진정성이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으로서 경험한 친부모 부양의 이유와 동기 그리고 부양의 심리적 현상과 부양의 의미와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참여자들의 부양이유와 동기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부모부양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참여자들은 많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양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친모의 건강악화, 친부의 부재, 동거하는 형제의 결혼, 근거리에 거주한다는 이유 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부양을 선택하는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자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함이나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31][32]와 도리로써 친모를 부양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철이든 자녀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에서 자녀로서의 감사와 은혜에 되갚음의 가치관[33]과 연관 있으며, 자녀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며 부모를 아끼는 마음과 보다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 및 태도가 형성되는 것[34]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친부모 부양경험을 하고 있는 중년기 딸들의 심리적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부양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먼저, 참여자들은 친부모 부양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호소하였는데, 경제적 부담감을 비롯해서 공간 사용의 불편, 부부불화 및 가족 갈등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부모부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대부분 경제적 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갈등을 가장 큰 제약으로 언급하고 있다[35][36].

그 외에도 참여자들의 심리적 현상에는 참여자 자신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부양하게 되었다고 자책하면서 낮아지는 자존감, 혼자서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억울함, 부양은 딸에게서 받고 아들만 편애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났는데,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37]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한 최소영(201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 한쪽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을 향한 고마움을 매일 아침상을 차려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부모님이 공경받는 느낌을 받도록 해드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 부모님께 남은 시간 동안 더 맞춰드리고, 외롭지 않도록 같이 있어 드려야겠다고 다짐 하였다. 이는 이원준(2012)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과 지원은 자녀들이 성장 후 부모를 향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8]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

며,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대한 신뢰는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연결되는[39][40]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부모의 부양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부양의 경험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게 되었는데, 먼저 참여자들은 육체적으론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오히려 안녕감과 만족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부양으로 인한 뿌듯함을 표현하고 자신이 엄마와 함께한 삶이 자신에겐 평생의 혜택이었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회상하였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노부모와의 행복한 동거로 인식되면서 이제는 노인이 된 어머니인데도 여전히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아플 때 서로 의지가 되는 것, 부양으로 부모로부터 자신이 인정을 받으면서 부모에 대한 공양심리가 더욱 깊어졌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들은 부양을 통하여 얻는 만족감은 부양자로 하여금 심리사회적인 안녕감을 높이며 부양부담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41]와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양자 역할을 통해 노부모에 대해 정서적 애착을 구체화한다[42]고 언급한 최인영(2002)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부양의 영향으로 먼저,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부모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노부모를 대하는 긍정적인 자신의 태도변화를 진술하였다. 이는 김유경(2000)이 노부모의 생활 만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와의 질적인 관계[43]라고 기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써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윤주, 이숙현(2004)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부모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44] 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양받는 부모가 본인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때, 노부모의 긍정적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는 것[45]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부양의 영향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노후에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부양의 영향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해졌다는 고백과 함께 부모님이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 자식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끝으로, 고령사회에서 부양가족을 우대하는 국가의 격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장 시설에 갈 정도는 아닌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년기 여성의 부양경험의 의미와 영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단회기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지속적인 회기를 통하여 면접을 한다면 더 깊은 심리적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참여자들을 40, 50대로 제한하지 말고, 2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모집하여 연령층대별로 지각하는 부양의 의미와 영향들을 연구한다면 부양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면담하고, 그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기에 전체 중년 여성들의 지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앞으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중년기 여성의 부양 경험을 연구한다면 질적, 양적 연구의 통합된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넷째, 차후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신빙성 높은 타당도 방안들을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부양하는 입장에서의 연구 이외에도 부양받는 부모입장에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양에 대한 양쪽의 입장과 의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성(아들)부양 경험자들과 여성(딸) 부양 경험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남성과 여성의 부양 경험의 차이와 그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형수,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전망과 대책," 현상과 인식, 제23권, 제4호, pp.80-99, 2000.

[2]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7.

[3] https://suyasea.blog.me/220419287657

[4] 김인유, "노(老)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사적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58집, pp.361-385, 2017.

[5]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17.

[6] 김윤정, 최유호,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 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2권, 제3호, pp.313-334, 2007.

[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17.

[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9]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10] http://www.idaegu.com/?c=6&uid=378909, 대구일보, 2018.01.30.

[11] https://blog.naver.com/120seoulcall/221027097868

[12] 김남금, *딸과 며느리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 이원준, 신성자, "중년 딸이 지각하는 부모헌신이 부모 신체 부양에 대한 정서적, 규범적 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제4호, 2013.

[14] 박지연, *비혼딸의 부모돌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5] 김현민,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와 딸의 돌봄 동기 및 과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 전명수, "요양노인과 가족 부양자의 특성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274-282, 2014.

[17] 김명자,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8] 김애순, 윤진, "중년기의 위기 : 중년기 위기감 : 그 시기확인 및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16, 1993.

[19]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i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1, 1978.

[20] V. Ma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1990. 신경림, 안규남 공역, *체험연구,* 동녘, 1994.

[21] 고미영, *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 청목출판사*, 2016.

[22]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8.

[23] 박순 외 10명, *상담학 질적연구방법론 사례집*, 시그마프레스, 2016.

[2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I*, 아카데미프레스, 2015.

[2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I*, 아카데미프레스, 2015.

[26] E. Husserl, Ideen zu einer eine Phänomenologie und Pha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egemiene Einfühung in die reine Phanomenologie, hrg. von W. Biemel, 1950. 공병혜, *간호연구학에서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연구에서 재인용, 2004.

[27] 박종환, "대학생들의상담실습에관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667-676, 2017.

[28] M. Q. Patton,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2.

[29]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Sage, 1998.

[30] 유기웅 외 공저,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6.

[31] 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32] 이정화,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며느리의 시부모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33] 박영신, 김의철,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 과 가족역할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서울:교육과학사, 2005.

[34]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인간발달연구, 제16권, 제2호, pp.109-141, 2009.

[35] 전귀연, 주현희, "치매노인의 기능장애와 부양장애와 부양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간환경 복지연구, 제1권, 제1호, 2001.

[36] 이은희, 윤가현, "치매노인 주부양자와 부양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노년학연구, 통권 제14권, pp.5-49, 2005.

[37] 최소영,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및 성역할인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8] 이원준, "중년부부가 지각하는 성장시 부모의 헌신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자녀 간의 친밀성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7권, pp.77-109, 2012.

[39] 유금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대학생과 부모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0] 성규택, "현대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가족중심 적 부모부양의 이념 및 실천," 한국노년학, 제9권, 제1호, pp.28-43, 1989.

[41] Y. J. Kim, K. J. Hyun, and J. H. Yue, "The Positive Experiences in Caregiving of Stoke Patients: A Study of Caregiv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Neurological Association, Vol.22, No.6, pp.590-597, 2004.

[42] 최인영, *노인부양 역할이 중년기 부양자의 생의 의미 자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3] 김유경, *세대간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4] 조윤주, 이숙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부양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p.72, 2004.

[45] 유금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대학생과 부모집단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저 자 소 개

박 종 환(Jong-Hwan Park) 정회원

- 1989년 : 삼육대학교 신학과(문학사)
- 1991년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신학석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상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상담심리학과 전임교원

<관심분야> : 상처받은 내면아이 상담과 심리치료

신 승 옥(Seung-Ok Shin) 정회원

- 2007년 8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2018년 10월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재학 중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 중구 마음중심심리상담소 소장
- 2013년 3월 ~ 현재 : 서울 이누리평생교육원 가족상담 및 치료 교강사

<관심분야> :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